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Pi \vee$

Q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침공] 우크라 국경수비대 "벨라루스·크림반도 넘어서도 공격"

송고시간 | 2022-02-24 15:48











박의래 기자 기자페이지

┃ "러·벨라루스 국경 따라 포격 이어져...크림반도에서 러 군사장비 이동 중"



러시아 침공 개시 후 불길 치솟는 우크라 남부 군사시설

(마리우폴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시작전을 개시한 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공항 인근 군사시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2.24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전격 선언한 가운데 우크라 북부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 남부 크림반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러시아군이 포병과 중장비 무기, 소형 무기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국경부대와 순찰대, 검문소를 공격하 고 있으며 국경수비대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수비대는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남부 마리우폴 시내로 진입하는 우크라 탱크들

(마디우폴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시내로 우크라이나군 탱크들이 진입하고 있다. 2022.2.24 leekm@yna.co.kr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난 10일부터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트와 도마노보 등에서 연합 훈련을 해왔다.

국경수비대는 또 러시아가 2014년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넘어서도 공격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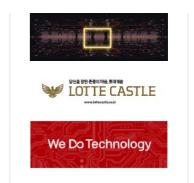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군사 장비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긴급 연설 형식으로 "우크라이 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작전을 선언했다.

이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목격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진행 중이다.



laecorp@yna.co.kr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유튜브로 보기

관련기사

푸틴, 우크라 새벽 침공 강행...미 "동맹과 가혹한 제재"(종합2보)
[속보] CNN "러, 벨라루스 국경 넘어 우크라 공격"
[우크라 일촉즉발] "벨라루스 등 접경지에 러시아 병력 증강 정황"
[우크라 일촉즉발] 러시아군 19만명에 둘러싸인 우크라...어디에 얼마나 러.벨라루스 연합훈련, 종료 직전 연장..."돈바스 상황 악화로"(종합2보)

러-벨라루스 훈련연장에 놀란 발틱 국가들 "나토 병력 증강해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15:48 송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수비대 #러시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등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旨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지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 40 힐예정"





















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배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메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토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라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콘텐츠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교단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a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